■ 민족문화연구 제108호(2025.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29-276.
http://doi.org/10.17948/kcs.2025..108.229

백과사전 올림말 풀이의 언어적 정비 방안에 대하여*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

서형국(徐炯國)**

목 차

1. 머리말: 백과사전, 사전 풀이, 언어적 정비
2. 올림말 표현
3. 올림말 풀이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간 활동에 관한 지식을 요약적으로 풀이한 사전 항목의 체계적 집적체로서 백과사전의 미시구조, 풀이 구조를 언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백과사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올림말이 표방하는 지식에 대한 풀이 방식을 언어적 관점에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에 따라 백과사전 올림말의 미시구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 지식 기반 방법과 표현 기반 방법을 구분하고 표현 기반의 상향식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풀이가 전환·성과 중심 풀이, 인과 중심 풀이, 과정·기능 중심 풀이, 구조화된 속성 중심 풀이의 네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이

* 이 논문은 제45차 한국사전학회 전국학술대회(2025. 2. 19. 연세대학교)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다듬은 것이다. 도원영(고려대), 장경식(한국백과사전연구소) 선생님의 조언과 익명의 심사 의견에서 소중한 통찰을 얻게 된 데 깊이 감사드린다. 본고에 남아 있을 문제는 필자만의 것임은 물론이다.
** 전북대 교수.

들은 풀이가 어떠한 정보 유형을 어떠한 속성을 중심으로 어떠한 시간 속성에 따라 내용의 짜임새를 형성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올림말의 풀이 유형별로 올림말 풀이가 어떠한 짜임새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남은 문제를 정리하였다.

주제어: 백과사전, 올림말 풀이, 풀이 유형, 언어적 정비, 풀이의 체계성, 미시구조, 풀이의 일관성

1. 머리말: 백과사전, 사전 풀이, 언어적 정비

백과사전이란 인간 활동에 관련되는 사물과 일에 관한 지식을 요약적으로 풀이한 사전 항목의 체계적 집적체, 즉 인간이 살아가며 축적한 지식을 요약하여 풀이한 언어 정보의 체계적 집적체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하 '민백')은 '한국민족문화' 분야에 특화하여 그 지식을 항목으로 나누어 요약적으로 풀이한 정보의 체계적 집적체이다.

백과사전에 관여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인간 활동의 내용과 결과는 사전 풀이의 대상이다. 백과사전 편찬에서는 이를 체계적 지식으로 재구하여 편찬의 대상으로 삼는다. 편찬의 과정에서 체계적 지식은 정보로 분절되어 독자가 체계화하기 쉽게 제시된다. 독자는 백과사전 풀이에서 정보를 접하면서 인간 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이루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획득한다. 즉 인간 활동의 내용과 결과로서 지식·정보는 백과사전의 필수 요소이다.[1)]

1) 백과사전이 인간 활동과 관련한 '지식'을 기반·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전(事典)'이라는 용어 사용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일[事]'은 자연 세계의 존재, 사태에 관한 지식('비언어 지식')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말이지, '지식'이 아닌 자연 세계의 존재, 사태를 말하고자 쓰인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辭典)'은 언어 지식을 기반·목표로 하며, '사전(事典)'은 주로 비언어 지식을 기반·목표로 한다. 물론 '사전(辭典)'에 비언어 정보가 고려·포함될 필요가 있고, '사전(事典)'에도 언어 정보가 고려·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서 지향하는 언어·비언어 지식은 다양한 정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백과)사전이 지식을 정보로 환원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수단이자 집적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특히 '사전(事典)'이라는 용어는 올림말 풀이에 담기는 내용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어 처리의 관점에서 백과사전을 연구하는 자리에서도 '일'과 '지식'은 선명하게 구분된다. 왕지현 외(2004: 793)에서는 민백의 '백과사전' 정의를 "백과사전은 실세계(real world)의 지식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집대성해 놓은 일반적인 데이터 또는 언어자원"(밑줄은 필자)으로

이를 조동일(1992: 269-270)의 정의 "한민족이, (강역 안팎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개척하고 사회를 형성하며,) 사고를 다져 언어를 가꾸고 예술을 창조해 온 유산과 그 현대적 양상"(괄호는 필자)을 가져와 정리하면, '한민족의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가꾸고 창조된 '언어, 예술'이 집필의 대상이 된다. '문화'는 강역, 역사, 자연, 활동에 인간(여기서는 '민족')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유산・양상[2]으로 규정된다.

(1) 총괄적 문화 1. 민족 2. 강역 3. 역사
외면적 문화 4. 자연과의 관계 5. 생활 6. 사회
내면적 문화 7. 사고 8. 언어와 정보 전달 9. 예술
(조동일 1992의 대분류)

둘째, 지식의 부문은 편찬 목적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된다. '백과사전'이 인간 지식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게 기본값이라면,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민족문화'를 지식 부문으로 한다.[3] 즉, 백과사전을 규정해 주는 요건으로 지식・정보는 필수이지만 부문은 수의적이다.

백과사전의 풀이 대상을 '지식'으로만 한정하고[4] 특정 영역(field)이나 분야(discipline)의 상위(general) 개념, 또는 하위(special) 개념을 대상으로 함을 백과사전 정의에 반영하기도 한다(Hartmann and James 1998, 정철

재해석한다. 개념구조를 계층적으로 수립하여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는 현실 세계의 대상은 '사실'이라는 틀로 만들어 체계화하고 이를 반영한 '사실 자료(Fact Database)'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신효필 2002: 42)도 '일'과 '개념'을 엄밀히 구분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규정의 '유산'과 '양상'도 '유산, 양상에 대한 지식'이 구현 대상이며, 백과사전 집필에서는 사전에 수록할 수 있도록 추출・정비한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일과 지식(그리고 정보)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각주 1)을 참고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따로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3) 이런 면에서 기존에 '(학문, 예술, 사회, 경제 따위의) 과학과 자연 및 인간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지식'(최호섭 외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처럼 '모든 지식', '일체의 지식'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루는 부문을 유형화하여 한정하려는 정의는 불요하다. 민백 초판의 일러두기에서 '한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정확히는 '한민족이 수행한 행위와 그 결과로 남은 문화 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모든 분야를 다루는 사전"(정철 2008: 102), "백과사전(百科事典, encyclopedia)이란, 일반적으로 지식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특정 분야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서"(장경식 2021: 94) 같은 정의에 이런 관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08, 장경식 2021, 다음백과, 영어판 위키피디아). '자연과 인간 활동'으로 풀이 대상을 지목하는 방식은 한국적 백과사전 정의에서 주로 쓰이는 듯하다.

민백은 지식의 부문을 13가지 '분야'로, 존재의 갈래를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여러 사전에서 이 구분을 원용하고 있다.[5] 이 구분은 백과사전의 풀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2) 분야: 지리, 역사, 정치・법제, 경제・산업, 사회, 과학, 문학, 언어, 종교・철학, 예술・체육, 언론・출판, 교육, 생활 (13가지)
유형: 개념, 단체, 놀이, 생물, 문헌, 물품, 사건, 유적, 음식・약, 의례・행사, 의복, 인물, 작품, 제도, 지명, 국가유산 (16가지)

셋째, 지식을 요약하고 사전 풀이를 하는 집필진・편집진의 '관점'[6] 유무는 백과사전의 정의적 요인은 아니다. 편집진의 편찬 과정에서 '관점'은 필수적으로 개입되지만 독자로서는 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하나일 뿐이다.[7] 민백은 애초 편찬의 동기・목표에 "민족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평가를 높이며, 앞으로의 연구를 촉진하는 최상의 구실을

5) 『한국문화 국영문 사전』에서는 민백의 분야,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개념 유형'을 나누어 집필함으로써 문화 항목에 내재한 뜻을 풍부히 하고 다른 문화태들로의 연계적 이해 확장을 도모하였다고 한다(박소영 외 2024: 80). 민백의 '분야'와 '유형' 분류는 다른 사전에 끼친 영향이 크지만, 백과사전이 다루는 분과 영역을 한정하는 외에도 올림말을 규정하거나 집필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6) '관점'은 백과사전 풀이에 쓰이는 '지식'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를 테면 백과사전의 "풀이에는 구체적 사실이 동반"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실'의 기술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인과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 이해(지식)가 백과사전에 반영된다고 보기도 한다(장경식 2008: 118). '배경'을 포함하여 '인과'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일'을 파악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에 의하여 재범주화되어야 규정될 수 있다. 백과사전의 올림말로 삼거나 빼는 일, 올림말 풀이에 넣거나 빼는 일, 풀이의 양과 정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처럼 백과사전 편집진의 의도적 처리 대상이 되는 사항을 우리는 '관점'에 영향을 받는 일로 좁혀서 이해하고자 한다.

7) "구조뿐 아니라 개별 항목 하나하나는 '해당 사회의 담론, 또는 발간 주체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강조하는 담론에 바탕을 두어 언술된 것'"(장경식 2021: 94)이기도 하다. 어떤 지식을 올림말로 세울 것인지, 풀이에 넣는 정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하는 집필진・편집진의 결정은 독자가 취사 선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관점'이고, 대상에 대한 평가, 명시적으로 풀이된 관점 등은 독자가 비판적으로 취사할 만한 관점이다.

한다"(조동일 1992: 266)는 '관점'이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반면, 개별 올림말로 민백을 접하는 독자가 그와 같은 관점을 불가결하게 추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넷째, 사전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백과사전에서 인간 지식은 올림말('항목')을 매개로 하여 단위화되어 나열된다. 전체 올림말로 사전의 거시 구조를 형성하고, 각 올림말은 사전으로서의 미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백과사전의 올림말은 편집진에게는 풀이의 내용 짜임새를 갖추는 완결성의 1차 단위이고, 독자에게는 정보 검색의 1차 단위이다.[8]

다섯째, 사전 풀이는 갖추어진 체계가 지식을 재구하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 기대된다. 독자는 올림말 풀이에 제시되는 정보의 종류와 순서를 가장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진은 주도면밀하게 획정한 정보 제시틀을 필진과 함께 구현하여 독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여섯째, 백과사전의 내용은 일관된 짜임새를 갖추어야 한다. 체계적인 백과사전을 접한다면 한 올림말에서 정보를 얻은 방식이 다른 항목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1〉에서 예시한바, '강릉 홍제동 유적'의 풀이를 읽은 독자라면 '경주 동천동 도시 유적'에서도 유사한 정보가 비슷한 방식으로 배열·전개되어 있어 같은 틀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9]

---

8) 인간 지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더라도 '책'일 것을 백과사전 정의에 포함하는 것(장경식 2021)은 은유일 수는 있어도 요건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면에서 백과사전의 내용 점검은 거시 구조를 고려하면서, 올림말 풀이 각각의 내용 짜임새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9) 민백은 최근 온라인 열람이 주류가 되면서 종이 사전 출판에 맞추어진 풀이의 미시구조(위 표의 '목차')를 온라인에 맞춤하게 개편하고 있다. 올림말 아래, 머리부의 앞에 '내용 요약'과 '키워드'를 추가하고 '정의'와 '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내용 요약'과 '정의'는 풀이 본문과 집필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개설', '키워드'도 새로 추가되는 중이어서 올림말마다 새로운 미시구조가 모두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표 1〉 민백의 올림말 풀이 목차의 사례(일부)

풀이 유형	Ⅰ	Ⅱ	Ⅲ	Ⅳ	Ⅴ	Ⅵ	…
머리부	정의	정의 개설	정의 개설	정의 개설	정의 개설	정의 개설	…
본문	내용	내용	내용 특징	역사적 변천 내용 특징	역사적 배경 내용 변천과 현황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기능과 역할	…
맺음부	참고문헌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올림말	가금법	강릉 홍제동 유적 경주 석장동 고분군	개선사 석등기	경주 동천동 도시 유적 가야산 산성	개제헌병약조	고려인 빨치산	…

일곱째, 백과사전은 올림말이 많은 수로 집적되어 있어야 한다. 용어 풀이집, 블로그와 백과사전은 달라야 한다. 많은 올림말이 규칙적 방식으로 모여 있는 단일한 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덟째, 올림말이 모여 있는 매체의 형태는 백과사전의 요건이라고 하기 어렵다. 매체의 유형, 매체의 복잡성은 백과사전의 특성과 정보 유형에 딸림하여 그 방식이 한정된다. 그렇다고 시각 매체, 청각 매체 등의 매체 유형, 지면, 화면과 같은 출력 매체의 종류,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정보 표출 매체 등이 어떤 방식으로 복합되어 있는지 등은 백과사전의 정의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여덟 가지 백과사전 요건을 확인하였다. 지식·정보, 부문, 관점, 거시·미시구조, 풀이의 체계성, 일관된 짜임새, 올림말의 수, 매체.

1 사전에 제시된 정보의 질은 백과사전을 평가하는 가장 우선되는 척도이다. 본고에서처럼 언어적 정비 방안을 찾으려는 데서는 그 질을 평가하는 것은 본격 소관이 아니다. 정보가 지식 형성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제시 방식(④, ⑤)을 점검하는 언어적 방법론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백과사전에서 어느 부문을 다루는지는 편찬에서 결정된다. 백과사전의 첫째 요건에 해당하고 언어적 정비와는 거리가 있으나, 해당 부문의 지식을

어떤 범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는 백과사전 편찬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0]

③ 백과사전의 관점은 집필진, 편집진에게 우선적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사전을 접하게 되는 지금의 방식에서는 수용하는 독자의 평가로부터 이러한 관점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진다. 이 역시 사전 풀이에 대한 내용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거시・미시구조는 백과사전 풀이에서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하면서도 지식·정보의 내용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타당성·합리성을 다루지는 못하여 온 것으로 본고는 판단한다. 표 1.의 민백 목차 예시에서 그 문제 됨을 얼마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민백이 풀이하는 지식의 질적 평가는 본격 임무로 하지 않는 대신, 올림말 풀이가 내용의 짜임새를 어떻게 갖추었는지, 즉 올림말이 구성하고자 하는 지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요를 어떻게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한다.

⑤ 풀이의 체계성은 올림말 풀이에서 정보를 제시하는 편집진의 기획으로부터 독자가 이들 정보를 수합하여 지식으로 구축하는 데 어떤 용이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올림말 풀이에 쓰인 정보의 종류, 정보를 전개하는 순서, 각 정보 전개의 기준을 점검의 대상이라고 이해하려 한다.

⑥ 백과사전의 풀이는 올림말의 분야와 유형이 서로 달라 단일한 짜임새를 일관성 있게 강제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올림말이 어느 지식 분야를 다루고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단일한 백과사전으로부터 유사한 방식의 정보를 비교적 일관되게 찾아낼 것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올림말마다 갖는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풀이에서 내용 전개의 일관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

10) 백과사전이 다루어야 하는 지식 부문에 따라 어떤 범위를 다루어야 하고 풀이 방식이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질적으로 회고하고 평가한 논의로서 조동일(1992)는 그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⑦ 올림말의 수는 백과사전 가져야 하는 '항목 집적'을 뜻한다. 올림말의 수는 한정하기 어려우나 상당 정도가 집적되어야 하고, 그 항목의 누적과 연결은 백과사전의 거시구조를 이루어 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백과사전의 언어적 정비에 주목하는 본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다.

⑧ 백과사전 풀이가 제공되는 매체는 웹 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출력 매체는 모니터 화면과 같은 고정된 출력물일 수도 있으나, 휴대전화 화면과 같은 작은 화면을 통해서 출력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기로 하고 정보 검색과 출력의 절차, 시스템의 안정성과 같은 언어 외적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 활동에 관련되는 사물과 일에 관한 지식을 사전의 형식으로 요약 풀이한 올림말의 체계적 집적체로서 백과사전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④ 사전의 거시·미시구조를 대상으로 ⑤ 풀이의 체계성, ⑥ 올림말 풀이의 일관성 수립을 지향하여 민백의 풀이를 점검하여 보려고 한다. 본고에서 ④, ⑤, ⑥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는 까닭은 백과사전의 본질적 요건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언어적 정비 방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완성된 백과사전의 평가 요인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

(3)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 요소(박준식·김문영 1999, 장경식 2008: 128 각주 23)
1. 목적과 범위 2. 권위
3. 접근성: 항목 채택(대·중·소항목)의 적절성, 항목 형식과 배열 방법, 색인, 상호참조의 형식과 다양성 등
4. 기술 형식: 표현의 명확성과 전체적인 일관성, 최신성의 유지와 연감과 같은 보유편의 발행 등
5. 형태적 특징 6. 특징과 가격

(4) CD-ROM 백과사전의 일반적 평가 요소(박준식·문정순 2000: 28)
1. 내용의 정확성 2. 내용의 범위와 심도
3. 독해 수준 4. 기고자의 권위나 신뢰성
5. 최신성/연간 갱신 양

(3)과 (4)는 문헌 정보학 분야의 평가[11]로서 백과사전 풀이에 대한 내용

11)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백과사전'은 서로 다른 범주 안에서 이해된다. 문헌 정보학에서는 '…한

정비가 부각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독자(수용자)의 관점에서 백과사전 풀이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전문 영역과 분야별로 집필된 백과사전 개별 올림말의 사전 풀이(이하 '올림말 풀이')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하려면 언어적 관점에서 어떤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모색하려고 한다.

이 백과사전은 한국학의 전공 영역을 전체 범위로 하여 분야, 유형이 분류·명시된 올림말에 대하여, '정의', '개관'을 풀이의 머리에 두고, 여러 목(목차)으로 본문 풀이를 구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전의 유형화된 올림말이 표현 그 자체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요점을 점검하고, 올림말 풀이를 유형화한 아래에서 올림말 풀이에서 발견되는 보완점을 수정할 수 있는 제안 사항[12]을 언어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거침으로써 백과사전 집필 내용이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올림말 풀이와 용어 사용, 풀이 내용의 구성에서, 탈전문적 수준의 백과사전으로 정비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3]

2. 올림말 표현

백과사전에 어떤 올림말을 선정하여 싣고, 각각의 올림말은 어떤 체제 아

정보원', 자연어 처리에서는 '…한 언어 자료'로 정의되는 경우가 쉽게 발견된다.

12) 본고에서 인용하는 민백의 서술에서 오류를 짚는 일이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교감 방안을 논의하려는 데서 부득이 언급하게 된 것일 뿐 본 논의의 논점이 아니다.

13) 민백 지속편찬사업의 3단계(2024-2027)를 시작하면서 현영희(2024: 225)에서는 성취 요건을 제시하였다.

1) (민백이 지향하는) 일반 독자 수준을 고려한 쉽고 정확한 내용의 사전을 구축하고 있는가?

2) 웹사전으로서의 편의성을 갖춘 사전을 구축하고 있는가?

3) 일관성 있는 정교한 사전을 구축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성취 요건이 각각 거시·미시 구조의 체계성('정확한 내용', '정교한 사전', '편의성을 갖춘'), 미시 구조의 일관성('일관성 있는'), 독자 지향의 풀이('쉽고', '편의성을 갖춘')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래에서 제시되는지는 그 사전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ㄱ. 이와 같이 정의내리고 범위를 정한 한국민족문화를 분류하기 위해서 〈한국민족문화분류표〉를 마련했다. … 위의 표가 실제 작업에서 가질 수 있는 의의는 우선 취급해야 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표에는 나타나 있는데 다루지 않은 영역은 없는 것 같다.(조동일 1992: 270-272)
ㄴ. 『다산학사전』에서 표제어 선정 범위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다산학사전』의 정체성(整體性, identity)과 관련되며 결국 『다산학사전』의 사전학적 유형 혹은 위상과 관계된다.(김학재 2014: 9).

(5ㄱ)에서 민백은 올림말을 한국민족문화를 빠짐없이 다룰 수 있게 선정하고, 각각의 올림말이 서로 상하 관계를 촘촘하게 보완함으로써 민백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민족문화의 면목을 고루 드러내고자 하였다. 여기에 민백의 올림말 선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그 구체적 방안도 부분적이나마 서술되었다.

(5ㄴ)에서 사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표제어'를 어느 범위까지 선정하는지를 고민함으로써 이 사전의 유형과 위상을 정하여 보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유당전서』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제어로 선정할 수 없었고 '다산학과의 관계성'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어야만 표제어로 선정 가능"하다는 올림말 선정 원칙을 제시하였다.[14]

본 절에서는 올림말이 독자에게 이해되는 과정, 올림말이 사전 체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올림말 풀이와 상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올림말이 갖는 중요성을 논외로 하면, 사전 체제와 사전 풀이가 본 절에서 다루는 사전 정보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다.[15]

14) 최근 간행된 『한국문화 국영문 사전』에서는 편찬 목적이 "독자가 수록 정보를 통해 연계적 지식을 갖추도록 사전을 만든다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었음"을 밝히는 한편, 올림말 풀이들 간에 우산 개념의 상위 폴더에서 하위 폴더로 좁혀가는 양식을 밑그림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다(박소영 외 2024). 즉, 연역적인 지식 체계로서 점증적인 배려를 하였음은 제시하고 있으나, 각 올림말의 풀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를 가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웹서비스를 위하여 사전 내용을 XML로 구조화하는 데서 "상위 개념

논의에 앞서 백과사전 올림말을 언어 사전의 올림말과 구별하여 이해해 보기로 한다.

백과사전이나 언어 사전이나 올림말은 해당 올림말 풀이에서 제공되는 지식을 대표한다. 집필진, 편집진으로서는 풀이하고자 하는 지식을 구축하도록 관련 정보를 이 올림말 아래에 한데 모아 제공한다는 뜻이고, 독자로서는 찾고자 하는 지식·정보를 이 올림말을 색인으로 하여 찾게 된다는 뜻이다. 즉 올림말은 지식 탐색의 창구이다. 따라서 올림말은 풀이된 지식을 대표한다.

백과사전의 올림말은 '개념', '지식'을 나타내지만, 언어 사전의 올림말은 언어학적 방법, 특히 형태(음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석출된 언어학적 실체, 즉 표기, 음운, 형태 부문의 정보를 제공한다. 백과사전의 올림말은 해당 올림말이 가리키는 사물·일에 관한 지식을 지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반면, 언어 사전의 올림말은 해당 올림말의 음운·형태 지식이 반영된 표기로써 해당 언어 단위를 대표한다.

사전의 올림말은 지식을 대표하지만, 독자는 '올림말 표현'을 창구로 하여 해당 지식에 접근한다. 백과사전의 올림말 표현은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지시체')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아 무방하지만, 언어 사전의 올림말 표현은 언어 단위의 특정 부문(국어사전의 경우, 표기)[16]의 지식을 나타낸다. 백과사전은 올림말로써 올림말이 가리키는 지시체를 고유하고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우선된다.[17]

으로서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요소(Structural Element)'와 텍스트의 특정 어휘의 성격을 식별하는 문중 요소(In-Text Element)'로 나누어 설계하였다"고 한다(김창일 2011: 80-81). 구조 요소는 사전 체제에 해당하고, 문중 요소는 사전 풀이에 쓰인 주요 개념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창일(2011)에 의하면 이렇게 처리한 문중 요소를 활용하여 재생산한 결과가 어떤 체계를 가지게 되는지는 간접적으로(확장 및 갱신 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16) 한어(漢語)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글자 모양[形], 말소리[音], 의미[意]가 대별되고,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편찬한 사전이 부문별로 있음(자전, 운서, 유서)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17) 백과사전의 풀이에 쓰인 정보는 총합하여 지식을 형성하게 될 때 '올림말'이 가리키는 단일한 지식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언어 사전에 베풀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립한 지식은 올림말로 대표되기만 하는 언어적 존재일 뿐이어서 해당 올림말 지식 가운데 특정 부문에 대한 지식을 형성/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백과사전의 미시구조에 담기는 정보가 일관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착시일 수도 있다.

1) 올림말의 고유성

백과사전의 올림말은 원칙적으로 독자와 편찬자 상호적으로, 또한 올림말과 사전 풀이가 상호적으로 고유하여야 한다.[18] 즉, 모호성 없이 해석되는 올림말 표현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게 이해되는 내용이 사전 풀이에 반영되고, 올림말과 풀이의 이러한 관계가 사전의 의도에 부합하여 독자가 읽어내고자 하는 기대 지식에 해당하는 게 이상적이다.

백과사전의 한 올림말이 여러 개념, 올림말을 대표하면서 포괄적인 일반성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올림말은 사전에는 대등하게 표시된 다른 올림말과 지식·의미적으로 상하 관계를 갖는다. 즉 올림말이 계층성을 배경으로 가지면 다른 올림말에 의존하게 된다.[19]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민백의 경우, 모든 올림말은 독자적인 항목으로 표시된다. 종이 사전이라면 인접해 있을 올림말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관련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나, 상하 관계나 등위 관계에 있는 올림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계층성은 본고에서는 크게 거론하기 어렵다.

백과사전의 올림말은 풀이에서 습득한 정보로부터 형성하게 되는 지식을 단일하게 표방한다. 그런데 민백에는 고유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올림말이 여러 유형으로 존재한다.

---

18) 기호 단위와 의미(기능) 단위가 상호적으로 고유한 관계에 놓일 때 양방향 유일성(biuniqueness)을 가진다고 한다. 올림말과 풀이의 상호적 고유성은 언어학의 양방향 유일성(isomorphism)과 유사한 면이 있다.

19) '과학'과 같은 상위 개념 올림말('대항목')과 '이상 과학과 경험 과학'과 같은 하위 개념 올림말('소항목')은 각기 교육과 참조로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박준식·김문영 1999: 9, 장경식 2012: 164 각주 9에서 재인용). 학습 백과사전에서 올림말이 계층적 관계를 보이는 방식은 '과학'의 하위에 부표제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상 과학과 경험 과학', '기술 생산과의 관계'를 차례로 보이는 식이다. 이때 '과학'과 '이상 과학과 경험 과학', '과학'과 '기술 생산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체계성이 맺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달성될 수 있고, 참고 목적은 요약적이고 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데서 달성된다고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과학'이 '이상 과학과 경험 과학', '기술 생산과의 관계'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은 '체계적 참조', 즉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의하거나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상하 관계를 갖는 계층적 지식이 동형의 올림말로 표현되면, 즉 지식의 계층적 성격을 반영하지 않은 올림말을 독자는 고유하게 해석할 수 없다.

(6)ㄱ.감지은니 묘법연화경(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9654)
[불교]・[문헌]・[국가유산]
ㄴ.감지은니 묘법연화경(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849)
[불교]・[문헌]・[국가유산]

(6ㄱ)과 (6ㄴ)은 모두 1330년 이루어진 이신기(李臣起)・정인(正因) 발원의 7책 사경본에 대한 올림말이다. '감지은니 묘법연화경'은 사실상 일반 명사와 같아서 쪽물을 들인 종이에 은가루로 쓴 묘법연화경을 말한다.[20] , (6ㄱ)은 이 사경본에 대한 서지학적 총론을 풀이하고 있고 (6ㄴ)은 각 권(의 문화유산 지정 사항)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다.

(6)의 올림말 표현은 현재의 사전 풀이가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지식을 고유하게 대표할 수 없다. 독자는 이 올림말을 보고 1330년 사성(寫成)된 이신기・정인 발원본에 대한 정보만을 배타적으로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풀이와, 올림말로부터 당연히 예측하게 되는 기대 정보가 서로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림말, 혹은 올림말과 풀이의 수정이 필요하다.

가정적이게 되지만 본고에서 (6)의 올림말과 풀이 내용을 (7)과 같이 제안하여 보인다.

(7)ㄱ.감지은니 묘법연화경(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9654)
[불교]・[문헌]
풀이 내용: '감지'와 '은니'에 대한 설명, 문헌 구성(권책수, 내용 서지), 존본(서지, 소장본, 지정 사항)

20) 따라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은 이신기・정인 발원문이 있는 1330년 본 외에도, 1422년 비구 덕명(德明)이 발원한 천안 광덕사 사성본(국립중앙박물관 위탁 소장본(권1, 권7), 불교중앙박물관 소장본(권2, 4, 5, 6), 동아대학교 소장본(권3)), 발원문이 없어 사성 경위를 알 수 없는 경기도박물관 소장본(권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본(권7) 등 여러 이본이 존재한다.

ㄴ.이신기・정인 발원 감지은니 묘법연화경(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849) [불교]・[문헌]・[국가유산]
풀이 내용: 대상 확인, 형태 서지, 서지, 권차별 내용 서지, 소장 사항, 지정 사항

(7ㄱ)은 이런 유형의 문헌, 즉 유개념으로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풀이한다. (7ㄴ)은 (7ㄱ)으로 현전하는 7권 7책본 가운데 1330년 사성된 이신기・정인 발원문이 붙어 있는 문헌에 대하여 백과사전적 정보를 제공한다. (7ㄱ)은 추상적・개념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고 (7ㄴ)은 (7ㄱ)을 바탕으로 실재하는 존재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풀이한다.[21]

(6)을 (7ㄱ)과 (7ㄴ)으로 올림말을 가르고 풀이하는 지식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올림말의 양방향 유일성(isomorphism)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7) 올림말에서 본고는 올림말의 고유성이 올림말 표현 전체('감지은니 묘법연화경' 등)에서만 지킬 것을 요하였고, 올림말을 이루는 부분(여기서는 '묘법연화경')에 대해서는 필수적일 것을 요하지 않았다.[22]

등위 관계 지식을 나타내는 올림말에 대하여는 고유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이 모색되었다.

(8) ㄱ. 훈민정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805) [언어문자][문헌][국가유산]
ㄴ. 훈민정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806) [언어문

21) (7ㄴ)을 설정하는 데는 통용 서명에 대한 결정이 민백의 편찬 원칙으로 필요하다. 1330년 본 이신기・정인 발원의 감지은니 묘법연화경의 올림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통용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백과사전에 풀이할 지식을 올림말 단위로 갈라 구분하고 해당 지식 분야의 전문적 확인에 따라 올림말을 쓰는 원칙을 결정하며, 그렇게 결정된 '올림말 + 풀이할 지식'을 단위로 하여 집필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수합하는 전문 편집진이 필요하다. 백과사전에서 올림말 표현이 고유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7)과 같은 제안은 효용성을 갖기 어렵다. 한편, (7)처럼 올림말 표현을 수정하기보다 올림말에 변별 표현을 더함으로써 (6) 같은 동음 표현 올림말이 생기더라도 변별 표현, 즉 '길잡이 말'로 고유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도 한다(박진양 선생의 제언).

22) '묘법연화경'은 그 자체로 추상적 내용(텍스트)과 문헌(총칭적 부류명, 이본)을 가리키는 중의성이 있다. 즉, (6), (7)의 '묘법연화경'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물 문헌을 가리키고, '묘법연화경'이라는 불경 내용(텍스트)은 가리키지 않는다.

자][문헌]
ㄷ. 한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508) [언어문자][개념]

'훈민정음'은 문자의 이름, 책 이름(이본 있음), 문자 체계의 이름에 쓰이는 표현이다. (8ㄱ)은 간송 박물관에 소장된 한문본을 나타내는 올림말이고, (8ㄴ)은 언해본('국역본')을 포괄하여 풀이한 올림말이다. 문자 이름 '훈민정음'은 '한글'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이 베풀어졌다. 즉 '문자 이름'과 '책 이름'은 동음어 올림말이 생길 여지가 차단된 셈이다. (8ㄱ)과 (8ㄴ)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문헌이라고 보아야 하고 (8ㄱ)과 (8ㄷ)은 같은 이름으로 불려 온 지식을 표현한 올림말이다.[23]

(9) ㄱ. 판소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663) [국악][개념] 한 명의 창자(唱者)가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하는 전통 공연 예술.
ㄴ. 판소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664) [국악][작품][국가유산] 판소리 유파 중 동편제로 노래하는 흥보가.
ㄷ. 판소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665) [국악][작품][국가유산] 대구광역시에서 지정 보호하고 있는 판소리 「흥보가」.
ㄹ. 판소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666) [국악][작품][국가유산] 한 사람이 긴 이야기를 독특한 발성법으로 노래하며…성악의 한 분야
ㅁ. 판소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667) [국악][작품][국가유산] 고수의 북장단과 추임새를 곁들여 긴 이야기를 가객이 … 엮어 내는 가창 형태.

(9ㄱ)은 일반론으로 '판소리'라는 지식에 대한 설명이다. (9ㄴ-9ㅁ)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각 사례를 풀이 대상으로 하는데, (9ㄴ, ㄷ)이 각각 전남과 대구에서 지정된 「흥보가」라는 판소리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반해, (9ㄹ)은 예능 보유자 지정 현황을, (9ㅁ)은 전북의 지정 현황을 두루 서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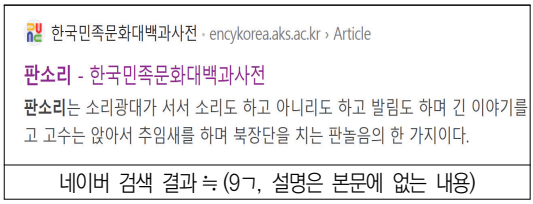
23) 반면 나무위키(https://namu.wiki/w/훈민정음)에서는 본문 첫 부분에, "표기 체계, 즉 오늘날의 한글('문자 이름-필자)'"과 "책 이름"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서술하고, 해당 풀이에서는 책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있는 차이가 있다.[24]

2) 올림말의 일반성

올림말은 일반적 해석에 反하지 않아야 한다. 중의성을 매몰하여야 한다. 중의성 문제에 관해서는 정철(2008: 82)에서 동형 올림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시 의미를 같이 하는 올림말까지를 포괄하여 중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음을 편찬의 실무적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다. 위 논문에서는 항목 간의 매핑 문제로 접근하였으나 사전 검색어를 처리하는 포털과 검색 엔진의 처리에서도 고려될 문제이다.

〈표 2〉 포털 통합 검색 결과 화면의 올림말 표시 사례



네이버 검색 결과 ≒ (9ㄱ, 설명은 본문에 없는 내용)



구글 검색 결과 = (9ㄱ의 내용 요약) | 빙 검색 결과 ≒ (9ㄱ의 전개과정 부분)

민백의 웹 페이지에서는 [분야]와 [유형]을 올림말 표현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일반적 해석을 보조하려고 하는 듯하다. 그러나 올림말 표현만으로 독자의 이해에 맞아떨어지는 해석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게 될 때, [분야], [유형] 정보가 올림말 표현 해석을 보조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25]

24) 이런 올림말 표시 방식은 국가유산 등록명을 올림말로 삼는다는 지침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일반 포털의 검색에서 민백의 올림말 표현이 노출될 때의 일반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표 2〉를 감안할 때 [분야]와 [유형]은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고 요약문을 올림말의 하단에 노출하거나(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풀이 가운데서 올림말과 관련되는 특징적인 부분을 노출하여 올림말에 시차성을 부여한다.[26] 민백 풀이의 [내용요약] 앞부분을 그대로 보이는 방안(구글 검색)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본문의 중간 부분을 노출하는 방식(빙 검색)이나 전혀 새로운 요약을 제시하는 방식(네이버 검색)은 백과사전 편찬진에서 깊이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3) 올림말의 체계성

올림말의 표기 방법, 유형 분류를 명시함으로써 올림말이 표방하는 지식의 유형을 확인하고 배경이 되는 체계를 드러내어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올림말 분류 및 체계화 방식은 기존의 분류 방식으로는 효능이 떨어져 새로운 방식의 연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27]

반면 각 올림말의 풀이 내용의 짜임새가 어떤 방식으로 틀이 잡히는 게 좋은지, 독자는 어떤 틀을 자연스럽고 체계적이라고 이해할 것인지는 여전히 유의미하고 효용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는 백과사전 편찬의 기존 체제에 대한 기억도 이어져 내려오는 듯하다.[28] 이런 면에서는 여전히 백과사전 올림말이 어떤 지식 체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뚜렷하게 이해하고

25) 올림말 표현을 고유하게 해석하는 데 [분야]보다 [유형]이 우선되는 듯한데(3장의 논의도 '유형'과 관련될 뿐, '분야'와는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 이 논점은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다.

26) 본고의 초고 작성 때에는 빙 검색의 경우, [분야], [유형]이 올림말 표기 아래의 본문 앞부분에 문자열로 노출되어 있어 올림말을 고유하게 한정하고자 하였다. 이후에 이를 노출하는 대신, [내용요약]과 같은 요약문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모두 전환되었다.

27) "검색 기능과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서는 더 이상 표제어가 가나다순(알파벳순)이거나 일정한 분류의 체계라는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참조'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백과사전의 내용 속에서 지식과 정보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지식 체계의 구분도 불분명해지고 있는 추세이다."(정승화 2016: 99)

28) 부정적 증언이기는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도 위키피디아 내부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 지식'이 존재하고 있고, 기존 사용자가 위키 시스템에 부여하는 도그마가 있다고 한다(정승화 2016: 106).

드러내어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간 지식을 분류하고 이를 구체적인 개별 문화의 사례로 풀이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10) ㄱ. 두산세계대백과: 동식물, 의학, 철학, 인물 등 총 13개 카테고리(왕지 현 외2004: 794). 현재는 이와 같은 분류를 노출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ㄴ. 브리태니커백과사전: 45개 중요한 주제로 구성(장경식 2008: 118)
ㄷ. 『인스타우라티오 마그나 Instrauratio magna』(프란시스 베이컨)의 세상 모든 지식의 갈래: 물질과 에너지, 지구, 지구 위의 삶, 인간, 인간 사 회, 예술, 기술, 종교, 인류의 역사, 지식의 갈래 등 10가지(장경식 2008: 120)
ㄹ. 『한국문화 국영문 사전』은 총 6개로 분류되는 문화 주제 범주를 구성하였다. ① 언어와 문학, ② 역사와 지리, ③ 생활과 과학, ④ 사회와 철학, ⑤ 미술과 건축, ⑥ 공연과 영상 (박소영 외 2024: 91)

이러한 분류 방식의 목적은 "한국학이 사실 고증의 실증적인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의 사고를 해명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하고 "작은 용어라도 하나씩 착실하게 정리해, 그 유래, 개념, 변천을 근거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이상 조동일 1992: 279)는 데 있어야 한다.

올림말의 표현 방식, 분류 방식으로부터 백과사전의 체계성을 얻으려면 그 분류 체계가 지식의 분야와 올림말 지시체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대등하게 다루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언어적으로 백과사전의 체계를 다루려는 본고의 목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다.[29]

올림말의 분류 체계, 혹은 풀이의 형식적 일관성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독자가 지식을 형성하는 용이성을 높이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본고는 생각한다(이를 테면 장경식 2008: 125의 각주 19. "인물 항목의 생몰년 표기 지침을 참고). 본고에서는 독자를 지향하는 백과사전 풀이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개개의 올림말 풀이가 가지는 특성을

29) 각 전문 분야에서 분류 체계와 집필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조동일 1992).

일정한 관점을 적용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3. 올림말 풀이

올림말이 개념 체계 내에서 어떤 상하 관계, 대등 관계에 놓이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림말로 구체화될 백과사전의 거시구조, 즉 개념 체계의 짜임새를 확인함으로써 올림말 풀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고려하는 백과사전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자연어 처리의 온톨로지와 지식 체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최근의 독자 중심의 백과사전 점검에서도 이런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도원영 외(2022), 장경식(2023)을 따라 하향식(top-down) 미시구조 점검 방법이라고 해 두자.

반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개의 정보를 특정 지식을 중심으로 모으고, 각 정보 간의 인접성에 따라서 이들을 구조화하는 미시구조 점검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 방법을 기간의 용어법을 빌려 상향식(bottom-up) 미시구조 점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전 풀이 대상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을 대변하는 술어와 문장을 점검하는 사전 점검 방식이 가능하다. 얼른 보기에 이들은 하향식 미시구조 점검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상향식 미시구조 점검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집필에서나 거시・미시구조 점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잘 갖추어진 정확한 지식을 출발점으로 하고 이를 언어 표현으로 서술・점검하는 순서의 백과사전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기왕에 집필된 백과사전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쓰인 술어와 언어 표현을 문면 그대로 이해해 봄으로써 집필진이 나타내고자 하였던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백과사전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가)집필된 백과사전의 언어 표현에서 출발하여 해당 언어 표현이 드러내는 백과사전 지식을 점검하는 순서의 백과사전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자를 지식 기반(knowledge-first) 백과사전 접근 방법, 혹은 지식 기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후자는 언어 표현 기반 백과사전 접근 방법, 혹은 단순히 표현 기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지식 기반 방법에서나 표현 기반 방법에서나 상향식, 하향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방식은 모두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민백 풀이에 나타난 정보를 취합하여 하향식으로 지식을 정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3〉 백과사전의 일반적인 서술 체계와 데이터 특성(최호섭 외 2003)

백과사전의 일반적인 서술 체계
정의, 개설, 형성(혹은 전개), 내용과 특징, 변천 및 현황, 의미, 기타, 참고문헌 및 자료
백과사전의 데이터 특성
■ 항목 정보 •항목의 속성을 항목명, 속성 분류(인명, 지명, 문화재, 작품, 단체, 사상, 문헌, 제도, 사건 등), 주제 분류, 지리 분류, 외래어, 한자, 약칭, 별칭, 참고문헌 등으로 분석해 낸 정보 •정형적인 데이터 형식 •지식 정보 자동 추출 가능 ■ 본문 •전문(全文), 사진, 도판, 표 등의 다양한 데이터 형태로 구성 •동화상, 음성까지 범위 확대 •정형적/비정형적 데이터 모두 포함 •자연언어처리 기법을 이용한 정보의 자동 추출 •수작업 정보 추출이 필요할 수도 있음

최호섭 외(2003)은 민백에서 지식 기반 방법론으로 하향식 개념 구조를 체계화하고,[30] 이 개념 구조로부터 개념 노드를 표현하는 어휘를 유기적으

30) 이를 온톨로지라고 하였는데, 이때 온톨로지란 '공유된 개념화(shared conceptualization)의 형식적이고 분명한 명세'(Gruber 1993, 신효필 2004: 524 재인용)로 정의된다. 환언하면, 세상에 어떤 "개념(concepts)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언어 중립적인 중간언어(interlingua)로 규정한 전산적 대상(computational entity)(신효필 2002: 41)이

로 연결하는 구조를 실현함으로써[31] 민백을 대상으로 자연어 처리의 방법론으로 백과사전의 논리 구조를 구현·개선하고자 하였다.[32] 즉,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지식을 백과사전의 구체적인 거시구조로 실현하는 방식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은 것이다. 지식 기반의 하향식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으로, 〈표 3〉과 같은 민백의 서술 체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향식의 방법으로도 지식 기반의 연구 방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33]

지식 기반의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전문 분야의 사전을 편찬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다산학사전』에서는 다산의 저작을 통틀어 올림말로 삼을 지식 단위를 추출하고, 이를 사전으로 체계화하였다.

〈표 4〉『다산학사전』의 주제 분류(김학재 2014: 19)

1. 다산학 일반	5. 음악(音樂)
1-1. 정약용 생애 관련 인물 및 집단	5-1. 음악 관련 단편 해제
1-2. 관련 역사 인물 및 집단	5-2. 음악 저술 및 용어
1-3. 정약용 관련 사건, 행사	5-3. 다산 음악학의 기본 개념과 용어
1-4. 정약용 생애 관련 문헌	5-4. 관련 문헌 전적
1-5. 정약용 생애 관련 지역, 유적지	6. 미술(美術)
	6-1. 정약용의 미술 작품
2. 경학(經學)	6-2. 미술 관련 논설 해제
2-1. 경학 관련 단편 해제	7. 경세학(經世學)
2-2. 사서경학	7-1. 경세학 관련 단편 해제
2-3. 삼경학	7-2. 경세학 저술 해제 및 용어

된다.

31) 어휘, 또는 품사를 중심으로 하는 부류 체계는 신효필(2004)에 잘 정리되어 있다. 어휘, 품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 부류 체계에서 사용하는 자질([인물], [구체물] 등)은 정의가 형식적, 명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문장 내의 통사·의미 관계를 중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백과사전 풀이 분석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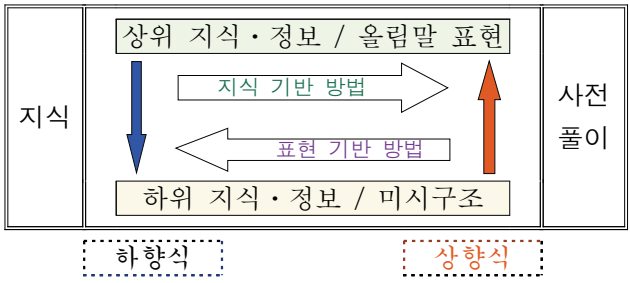
32) 최호섭 외(200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획정하고자 한 목표 지식은 다음과 같다.
1) 백과사전 범주 체계
2) 표제어를 온톨로지의 어휘(개념 노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3) 텍스트로부터 범주별로 추출한 공통적·개별적 속성과 속성값을 가진 백과사전 템플릿

33) 이와 같은 절충적 방식은 도원영 외(2022), 장경식 외(2024)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시도되었다.

2-4. 다산경학의 개념, 용어, 기타 사항 2-5. 다산경학 관련 중요 문헌 전적 3. 예학(禮學) 3-1. 다산예학 저술 해제 3-2. 다산예학 기본 개념과 용어 3-3. 다산예학 관련 중요 문헌 전적 4. 문학(文學) 4-1-1. 시(詩) 4-1-2. 문(文) 4-1-3. 어학(語學)·자서(字書)	8.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 8-1. 역사/지리학 관련 단편 해제 8-2. 역사/지리학 저술 해제 및 용어 8-3. 고지명(古地名) 9. 과학/의학(科學/醫學) 9-1. 과학/기술/군사 9-2. 의학 10. 교육 11. 기타 영역 11-1. 편저·기획 11-2. 물품 12. 다산학 관련 학파/학자/제도/사건/행사 등

이상에서 상정한 백과사전 점검 방식을 대략 다음처럼 개괄할 수 있을 것이다.[34]

〈표 5〉 사전의 점검 방식



본고에서는 상향식, 표현 기반 방법에 의거하여 민백의 사전 풀이를 점검하

34) 이 도식의 1) '올림말 표현'은 언어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하향식 접근에서 큰 의미가 없고, 상향식 접근에서도 별 기능을 하지 않는 듯하며, 2) '미시구조'는 지식·정보를 해석되는 게 우선되는 용어이지만 '미시구조를 나타낸 표현'을 나타내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과잉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 보려고 한다. 즉, 민백의 개별 올림말 풀이가 올림말 지식을 어떤 내용으로 분석하여 어떤 짜임새로 배치하였는지 분석하고, 이 분석, 즉 민백 올림말 풀이의 내용 짜임새에 따르면 민백의 올림말은 어떤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언어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1) 올림말 풀이의 유형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민백의 올림말의 풀이를 내용 짜임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이고자 한다.[35]

(1)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올림말의 전환·성과 중심 올림말 풀이

([현대문학] 분야의) [인물] 유형에 속하는 '김동리' 올림말의 목차와 풀이 골자는 다음과 같다.

(11) 정의 – 개설 – 생애 및 활동사항 – 참고문헌
(12) ㄱ. 정의: 해방 이후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 등을 저술한 문학작가
ㄴ. 개설: 본관은 선산(善山). 호적명이 김창귀(金昌貴), 족보명은 김태창(金太昌), 아명(兒名)은 창봉(昌鳳). 자는 시종(始鍾), 호는 동리(東里). 경상북도 경주 출생. 조선 초기의 문신 김종직(金宗直)의 17대 손으로 아버지는 김임수(金壬守)이다. 동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큰형은 동양철학자 범부(凡父) 김기봉(金基鳳)이며, '동리'라는 호는 그가 지어준 것이다.
(13) 생애 및 활동사항
ㄱ. 〈유년·학업〉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동리는 … 학교에서만 수학하였다. …

35) 본 연구는 2023, 2024년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요약문 집필 사업'의 집필 지침을 작성하면서 필자가 검토한 표본적 올림말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한 것이다. 특히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학적 어휘상 분류 방식을 원용하여 민백의 올림말 풀이가 지닌 짜임새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 집필에서는 이 네 유형이 가장 차별성이 크다고 보고 각각이 조금씩 섞인 요약문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 탐색에 의한 유형 구분에 치중하기는 하였으나 본집필 과정에서 크게 다른 유형이 추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의 입장은 재검토를 거친 셈이다. 실제 민백의 풀이에서 확인된 유형 섞임은 3. 2)에서도 점검하나, 질적 평가를 수반하여 차후의 검토할 과제로 남아 있다.

ㄴ. 〈총괄: 순수문학〉 큰형의 제자였던 서정주(徐廷柱)와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그와 함께 한국문학사에 있어 순수문학의 전통을 수립하게 된다.
ㄴ′. 서라벌예술대학 교수를 거쳐 … 역임하였고, … 주요 문예 단체의 대표를 맡아 …
ㄷ. 〈문학세계 구축: 해방 전〉 1934년『조선일보』신춘문예에 시「백로(白鷺)」가 입선되면서 등단하였고 … 1930년대 후반 가장 주목받는 신세대 작가로 부각된다. Editor 특히, … 1930년대 후반 신세대 문학의 기수가 된 그는 서정주와 함께『시인부락』(1937)을 결성하면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ㄹ. 〈우익・순수문학〉 이후 그는 해방공간에서 … 우익계 단체인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 1947년부터 1948년까지 또다시 순수문학 논쟁을 벌이는데, …
ㄹ′. 한편 소설작품에서도 우파의 정치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투영시키는 … 좌파 계급주의 민족문학론에 대항하여 인간주의 문학론을 제창한다.
ㅁ. 〈문학론〉 그가 제창하는 인간주의 문학론은 … "순수문학 혹은 본격문학"으로 규정을 내린다.
ㅁ′. 즉, 그는 문학의 사회 참여와 공리성을 부정하는 문학적 입장에 서 있다. 그리하여 그의 대표작인 … 등을 통해 역사와 현실을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여 들어간다.
ㅁ″. 그것은 인간과 생명의 원형질적 정수(精髓)를 탐구하는 것이다. … 민족문학의 전통을 정립하고 확대시킨 작가이다.
ㅂ. 〈주요 작품〉 그밖에 주요 작품으로 …
ㅅ. 〈수상〉 그의 정력적 창작 활동과 화려한 문단 활동으로 …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12)는 '김동리' 풀이의 머리 부분으로서,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규정하여 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풀이 전체의 요지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각각 '정의', '개설'이 그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개설'은 다른 올림말 풀이와 달리 풀이 전체의 요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지는 않았다.

(13)은 풀이의 본문에 해당하는데, 제시되는 정보의 골자를 화살괄호 안에 더하여 보였다. 〈총괄: 순수문학〉을 제외하면, 〈유년・학업〉 정보로부터 〈문학론〉까지는 대체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괄:

순수문학〉, 〈주요 작품〉, 〈수상〉은 이 인물의 문학 부문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김동리' 풀이의 짜임새와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민백의 '내용 요약'을 문장별로 제시한다.

(14) '김동리' 내용 요약
ㄱ. 김동리는 해방 이후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 등을 저술한 문학작가이다.
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소설과 평론을 바탕으로 순수문학의 전통을 세웠다.
ㄷ. 해방공간에서 좌우익의 대립과 혼란 속에 우익계 단체인 '한국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했다.
ㄹ. 문학의 사회 참여와 공리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명과 원형질적 정수를 탐구하는 순수문학을 지향하였다.
ㅁ. 그는 '본격문학=순수문학=민족문학'이란 문학적 이념 아래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였다.
ㅂ. 『무녀도』 등의 단편집, 『문학과 인간』 등의 평론집, 『바위』 등의 시집, 『자연과 인생』 등의 수필집이 있다.

(14)의 '내용 요약'은 정의(ㄱ), 총괄(ㄴ), 우익·순수문학(ㄷ), 문학론(ㄹ, ㅁ), 주요 작품(ㅂ)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14)의 내용 요약은 (13)의 전체 풀이와 달리 시간 순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면에 줄이고, 문학 부문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였다.[36]

이상을 인물 관련 민백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7]

(15) ㄱ. '김동리'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한 대상에 관한 지식을 풀이한다.
ㄴ. 대상 존재는 존재 이전(출생 전), 존재 이후(사망 후)와 구별·유리되

36) (13)의 생애 및 활동사항과 (14)의 내용 요약은 집필자가 서로 다르다.
37) 자연어 처리에서 민백의 인물 올림말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왕지현 외(2004)의 인물 공통 속성(표)과 비교하면 '김동리' 풀이는 주로 '활동'(13ㄴ~ㅁ), '수상'(13ㅅ), '저서'(13ㅂ)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는 특성을 가진다.

ㄷ. '김동리'에 대한 지식은 존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전환, 성과가 그 특성으로 서술된다.

ㄹ. '김동리'에 대한 평가 및 의의는 존재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환·성과를 대상으로 하며, 존재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이 존재하는 데서 가치가 있다.

(13)의 풀이처럼 이 올림말은 '시간'이라는 축을 가지고 형성, 전개, 소멸의 과정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14)의 내용 요약처럼 전환과 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어 보인다. '김동리'에 대한 지식이 기간을 특성으로 하는 객관적 존재라는 점에서 민백의 올림말로 선정되었다기보다는 전환과 성과가 '민족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올림말로 선정될 수 있었을 개연성이 더 높다. 백과사전의 풀이로서 상세한 정보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전 '기간'의 면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 올림말 풀이를 집필한 입장이지만, 독자에게 우선적으로 꼽힐 정보는 이 기간이 주목되는 가치, 즉 전환·성과라는 것이 '내용 요약'을 집필한 입장으로 해석된다.[38]

이 부류의 풀이는 과거의 특정 기간을 배경으로 하여 단일하게 지식화된 사건·인물·단체·제도(지명) 등의 올림말에 적용된다. 이 부류 올림말의 풀이에는 구체적인 기간, 구체적 기간이 변모해 가는 과정, 이전·이후의 기간과 구별되어 해당 기간에 현저성을 갖는 전환·성과가 포함된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전환, 성과의 현저성은 그 길항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된다.[39]

템플릿 이름	속성 태그
출생	출생일, 출생 장소, 본관, 국적
명칭	별칭
사망	사망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활동	활동 분야
수상	수상명, 수상일
저서	저서명, 출판일

38) 그렇다고 '김동리' 풀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데 비해, '내용 요약'은 주관적이고 특정 관점을 반영하여 서로 대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풀이, 내용 요약 모두 집필자가 보기에 현저성이 있는 정보가 선택되어 풀이된 결과인 것이다.

길항 관계에 있는 인물, 장소, 시간 등은 현저성을 갖는 사건・성과와 연계되는 경우에 유의미할 뿐 풀이 대상의 본질적 요인은 아니다. 더불어 이 올림말 지시체의 존재 이전・이후 사건・인물・단체는 대립적 존재로서 부각될 수 있고 인과・목적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는 하나, 주로 차별성이 부각되는 존재로 풀이된다.

이 부류 올림말은 구체적 인물로서 주체, 대상이나 구체적 사건을 본질적 요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 절에서 말할 '인과 중심 올림말'(3. 1) (2))과 다르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일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탈구체화된 과정・기능 중심 올림말'(3. 1) (3))과 가장 가깝지만, 구성 요인들이 구체성을 가지며 기능적 요인보다는 성과를 가지고 재현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사람이 한 행위, 성과에 관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구조화된 속성 중심 올림말'(3. 1) (4))과 다르다.

이 부류의 풀이를 적용하는 올림말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16) 전환・성과 중심 올림말
ㄱ. [단체] 설립 목적 – 연원 및 변천 – 기능과 역할 - 의의와 평가 : 고려인 빨치산, 군산농사조합
ㄴ. [지명] 국호와 영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대외관계 : 조선

이 유형의 지식이 '기간'을 유의미한 속성으로 하고 '성과'를 가진다면, '조선', '무주군', '고려악'처럼 일정 기간 존재・유지된 대상에 관한 지식은 이 유형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39) 이를 테면, 조동일(2017: 34)에서는 최한기 철학의 용어인 '신기(神氣)'를 올림말로 두고 풀이할 것을 제시하면서 "최한기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기(氣) 철학의 발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기(氣)의 다른 개념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길항 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는 3. 2)의 (34) '고려악'에서도 볼 수 있다.

(2) (정점이 되는 사건을 특징으로 하는) 인과 중심 올림말 풀이

([근대사] 분야의) [사건] 유형에 속하는 '강화도조약' 올림말의 목차와 풀이 골자는 다음과 같다.

(17) 정의 – 개설 – 역사적 배경 – 내용 – 의의와 평가 – 참고문헌
(18) ㄱ. 정의: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ㄴ. 개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19) 역사적 배경
ㄱ. 〈시기・일본〉 1865년 왕정복고로 … 일본은, …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ㄴ. 〈반응・분위기〉 그런데 조선은 … 거부하였다. …
ㄴ′. 그러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하야, …
ㄷ. 〈변화〉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ㄹ. 〈청나라〉 한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
(20) 내용
ㄱ. 〈시초〉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 위협을 가해 왔다.
ㄴ. 〈본사건〉 또,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ㄷ. 〈조약 내용〉 중요 내용은, …
ㄹ. 〈조약 평가〉 특히, 제1조는 …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21) 의의와 평가
〈조약의 영향〉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 전환점이 되었다.

'강화도 조약' 올림말은 '정의'와 '개설'의 도입 부분을 빼면 '역사적 배경', '내용', '의의와 평가'를 개요로 하여 풀이되었다.[40] '역사적 배경', '내용'은 사건 전개의 시간 흐름 순서대로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의의와 평가'는 필진 또는 사계의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

'강화도 조약'은 시간의 흐름에서 인과 관계에 놓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고, 각 요인은 '주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주체가 포함된 각 요

40) 접속어의 사용 등을 볼 때 이들이 애초부터 이러한 개요를 두고 풀이되었다기보다는 분절하지 않고 풀이된 글을 내용 전개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제목을 끼운 듯해 보이기도 한다.

인의 시간순 배열이 인과관계를 자연스럽게 함의한다. (19ㄱ, 20ㄱ, ㄴ)은 일본, (19ㄴ, ㄷ, 21)은 조선, (19ㄹ)은 청나라로 각각 그 주체가 다르다. (20ㄷ, ㄹ)은 조약이 대상으로서 다른 요인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22) '강화도 조약' 내용 요약
ㄱ. 강화도조약은 1876년(고종 13)에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ㄴ.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다.
ㄷ.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ㄹ. 일본은 국교 촉진 방안으로 무력시위를 택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ㅁ.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원산・인천의 개항,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권 및 영사 재판권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조로 된 조약이 체결되었다.
ㅂ.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22)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 요약'이다. (22ㄱ)은 정의에 해당하고, (22ㄴ)은 이칭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올림말・정의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22ㄷ, ㄹ)은 모두 '일본'을 주체로 하고 있고, (22ㅁ)은 '조약'을 대상으로 하였다. (22ㅂ)은 '조선'을 대상으로 한 요약이지만 일본을 주체로 풀이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 부류의 풀이는 특정 시점에 맺어진 사건으로서 본질적으로 단일 사건으로 지식화된 사건 올림말에 적용된다. 이 부류 올림말의 풀이에는 사건을 이루는 구체적 인물, 장소, 시간 등이 포함되고, 부분 사건으로 이루어진 과정, 사건의 인과・목적 등도 포함된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서 재현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전, 이후의 사건과 인과 관계를 맺으며 이후의 다른 사건에 영향을 남기거나 다른 사건의 원인・배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참여자, 배경 등의 구성요소, 인과 관계를 맺는 전후의 사건, 사건을 이루는 부분 사건을 포함하는 과정, 영향과 후대의 평가 등이 풀이의 중심이 된다.

이 부류의 풀이를 적용할 수 있는 올림말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23) 인과 중심 풀이
ㄱ. 내용 – 의의와 평가: 간주리의 난(干朱理의 亂)
ㄴ. 역사적 배경 – 경과 – 결과: 경신참변(庚申慘變)
ㄷ. 역사적 배경 – 경과와 결과 – 의의와 평가: 경박호전투(鏡泊湖戰鬪)

(3) 탈구체화된 과정·기능 중심 올림말 풀이

[민속·인류] 분야의 [개념] 유형에 속하는 '걸립(乞粒)' 올림말의 목차와 풀이 골자는 다음과 같다.

(24) 정의 – 내용 – 참고문헌
(25) 정의: 어떤 집단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풍물을 치고 집집마다 다니며 축원을 해주고 돈과 곡식을 구하는 민속놀이. 걸립굿.
(26) 내용
ㄱ.〈명칭〉 '걸궁(乞窮)' 또는 '걸량(乞糧)'이라고도 하며 … 기록되어 있다.
ㄴ.〈(주체에 따른) 형태〉 걸립의 형태는 … 직업적인 패거리들의 걸립도 있다.
ㄷ.〈진행 순서〉 걸립굿의 순서는 … 공금으로 쓰인다.
ㄹ.〈형태①: 비정기적〉 직업적인 걸립패는 정초 이외에도 … 날당산굿을 치고 떠난다.
ㄹ′.〈형태①′: 정기적〉 정초에 동제(洞祭)나 마을굿에서 정기적으로 … 기금으로 사용된다.
ㄹ″.〈형태②: 절걸립〉 절에서 하는 절걸립은 … 곡식 등을 얻는다.
ㄹ‴.〈형태③: 무당 걸립〉 무당들의 걸립은 … 경우도 있다.
ㅁ.〈공통 특성〉 이상과 같은 세 형태는 어느 집단의 경우에나 …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ㅂ.〈의미〉 각 가정이 농악대의 방문을 맞아들여 … 의미도 포함된다.
ㅅ.〈지역성〉 농악대의 방문이라는 형식을 … 지역에 따라서 … 포함되어 있다.

이 부류는 사건을 서술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구현된 사건에서 시간, 주체를 탈구체화한, 즉 추상한 지식을 풀이한다. 걸립굿이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각 구체 사건에서 '정초'라는 시간, 혹은 비정기적 굿 시간으로, 걸립패, 마을 사람, 중, 무당으로 그 신분만을 대표하도록 추상한 주체 정보가 제시된다. 탈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시간과 주체는 올림말 풀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걸립'을 이해할 때 '시간'과 '주체'에 따라서 '형태'를 분류하여 인식한다.

(27) '걸립' 내용 요약
ㄱ. 걸립은 풍물을 치고 집집마다 다니며 축원을 해주고 돈과 곡식을 구하는 민속 놀이이다.
ㄴ. 걸립의 종류에는 마을 농악대의 걸립, 시주를 받기 위한 중들의 걸립이 있다.
ㄴ′. 또 신을 받았음을 인정받기 위해 무당이 하는 걸립도 있다.
ㄷ. 이 중에서 마을 농악대의 걸립이 가장 일반적인데 주로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전후에 행해진다.
ㄹ. 마을 농악대가 걸립을 통해 마련한 기금은 마을 공동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
ㅁ. 걸립은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의례적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
ㅁ′.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27)은 탈구체화된 사건 올림말인 '걸립'의 '내용 요약'을 문장별로 보인 것이다. (25ㄱ)은 '정의', (27ㄴ, ㄴ′)은 '주체에 따른 형태', (27ㄷ)은 '시기', (27ㄹ)은 '기능·목적', (27ㅁ, ㅁ′)은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27)의 '내용 요약'이 (26)의 '내용'이 지닌 짜임새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구체화된 과정·기능 중심 올림말은 구체성이 탈색된 사건에 관한 지식을 풀이한다. 이 부류의 풀이에는 사건을 이루는 탈구체화된 인물, 장소, 시간 등이 포함되고, 절차(≒진행 순서)적 부분 사건과 목적 등도 포함된다. 또 이 사건을 이루는 인물, 장소, 시간 등의 요소가 구체적인 인물, 장소, 시간 등으로 구현되면 해당 사건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정점 사건을 속성으로 하는 올림말과는 차이가 난다. 또한 이 사건의 이전이나 사건 이후의 사건이 유의미하게 부각되지 않고, (특히 걸립 후의 마을 사건처럼) 이후 사건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더라도 인과 관계로 실현되지 않고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점이 되는 사건 올림말과 차이가 있다.[41]

41) 다음 절에서 제시하게 되는 '속성을 특성으로 하는 올림말' 부류 가운데도, 탈구체화된 사건의 도구나 재료가 되는 대상의 경우에도 탈구체화된 사건이 현저성을 가지는 경우(예컨대 악기, 공구

(4) 구조화된 속성 중심 올림말 풀이

[동물] 분야의 [생물] 유형에 속하는 '가물치' 올림말의 목차와 풀이 골자는 다음과 같다.

(28) 정의 – 내용 – 참고문헌
(29) 정의: 가물치과[42]에 속하는 민물고기.
(30) 내용
ㄱ. 〈명칭〉 학명은 Channa argus (Cantor, 1842)이다.
ㄴ. 〈생김새〉 몸은 길고 가는 편이고, 길이가 … 세로띠가 있다.
ㄷ. 〈생태〉 우리나라 전지역의 담수계(淡水界)에 … 산란기는 5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이다.
ㄹ. 〈기록_이름①〉 가물치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이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
ㄹ′. 〈기록_이름②〉 1433년(세종 15)에 완성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에는 …
ㄹ″. 〈기록_이름③〉 『재물보(才物譜)』에는 …
ㅁ. 〈기록_설명④〉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도 …
ㅁ′. 〈기록_설명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
ㅁ″. 〈기록_설명⑥〉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
ㅂ. 〈기능/생산량〉 이와 같이 가물치는 … 양식은 769M/T였다.
ㅅ. 〈민담/의의〉 가물치와 관련된 민담으로는, …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물치'와 같은 생물 유형의 사전 풀이는 언어 사전에서나 백과사전에서나 정의문이 하는 역할이 다른 올림말의 정의문과 다르다. (29)의 정의문은 올림말 '가물치'가 가리키는 대상을 확정하여 주지 못한다. 민백의 정의문은 대개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확정해 주지만, 이 부류의 정의문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43] (29)의 정의문은 상위 범

등)에는 탈구체화된 사건 올림말처럼 서술되는 듯하다. 이런 면에서는 '탈구체화된 대상', 혹은 '기능적 대상'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42) 민백에서는 '과(科)'가 고유어 부류 명사에 결합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있다. 말하기를 우선해서 음성 정보를 표기에 반영하는 현행 정서법을 포기하고, 내용 이해하기를 우선하기 위해 음성 정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정보 표시·해득의 용이성을 추구하는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3) '내용 요약'과 '개설'은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올림말이 나타내는 대상을 독자가 쉽게 확인할

주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올림말의 지시체를 확정하는 일은 (30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44]

(30ㄴ, ㄷ)은 구체적 사건에서 추상되어 이 생물이 가진 속성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속성들이 모여 다른 종과 변별되는 가물치만의 개별성을 갖게 된다. (30ㄴ, ㄷ)이 '가물치' 지시체에 대한 내적 정보라면 (30ㄷ-ㅅ)은 가물치에 관해 사람이 축적한 정보, 즉 가물치의 외적 정보에 해당한다. (30ㄹ, ㅁ)은 민백의 특장점이 되는 정보이다. (30ㅂ)은 산업, (30ㅅ)은 민족문화와 직접 관련되는 풀이이다.

(31) 내용 요약
ㄱ. 가물치는 가물치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ㄴ. 몸은 길고 가는 편이고, 길이가 80㎝ 정도인 것도 있다.
ㄷ. 몸이 납작하며, 입이 크고 이빨이 날카로우며 지느러미에는 가시가 없다.
ㄹ. 검은빛으로 등 쪽은 짙고 배 쪽은 회백색이거나 황색이다.
ㅁ. 옆줄의 위와 아래에 각각 13개 정도의 불규칙한 흑갈색 큰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ㅂ. 머리의 양쪽에는 두 줄의 검은빛 세로띠가 있다.
ㅅ. 우리나라 전 지역의 담수계에 서식하며, 아시아 동남부 지방에 서식한다.
ㅇ.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가물치가 산후 부인의 백병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다.
ㅈ.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영양식품, 또는 약으로 애용된다.

'가물치' 풀이에 대한 내용 요약 (31)에서는 (30)의 풀이 본문과 달리 내적 정보에 특히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ㄱ)의 정의문을 제외하고는 '가물치'의 대상 확인을 위한 다른 장치를 요약의 본문에 들이기보다는 '가물치' 지시체의 내적 정보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대상 확인을 갈음하려 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가물치' 지시체의 내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가 (31)와 같은 풀이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수 있게 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4) 다른 경우의 이칭도 학명처럼 올림말의 지시체 확정 기능을 한다.

(31ㄴ)은 '길이', (31ㄷ)은 '몸피의 모양', (31ㄹ)은 '몸의 색', (31ㅁ, ㅂ)은 '특징적인 무늬'로 신체 특징을 그려내고 있고, (31ㅅ)은 '생태, 분포'를 서술하고 있다. (31ㅇ, ㅈ)은 외적 특성으로서 사람(민족)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반영하였다.

'가물치'에 대한 민백의 서술은 사건이 아닌 내적 정보를 구조적으로 풀이하는 게 관건이 된다. 외적 정보는 사람(민족)에게 이 대상이 갖는 의의를 풀이한다. 올림말 지시체와 관련되는 개별 사건은 내적 정보를 형성하지 못한다. 풀이에 제시된 사태는 객관적화된 속성 정보로서, 사람의 삶과는 무관하고, 외적 정보로서 사람(민족)의 삶과 연관성을 갖되 [인과]는 본질적 속성이 되기 어렵고, [목적]의 기능적 관계는 평가될 수 있다. 민백 풀이에서는 이 외적 정보가 사람·민족과 어떤 의의가 있는지 평가되며, 현재적 의의가 어떠한지를 추가할 수 있다.

유적, 유물 유형에 해당하는 올림말에 이러한 방식의 풀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문헌 부류 올림말: 궁원의(宮園儀)
ㄱ. 개설: 저자, 간행년, 내용
ㄴ. 형태 서지: 권책수, 판종, 판식
ㄴ′. 개간/중간: 유형, 간행자, 간행년, 간행지
ㄴ″. 소장: 소장처, 소장본, 영인 여부
ㄷ. 내용 서지: 의의
(33) 유물 부류 올림말: 개선사 석등기(開仙寺 石燈記: 구상적 처소, 추상적 텍스트)
ㄱ. 개설: 제작자, 제작년, 제작 대상
ㄴ. 형태: 유형, 구성, 제원, 재질·재료, 제작지
ㄴ′. 소장: 소장처, 소장 경위
ㄷ. 의의: 영향 관계(평가)

(5) 민백의 올림말 풀이 유형

본고에서는 민백 올림말 풀이가 올림말의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네 가

지 종류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민백의 올림말 풀이는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올림말 풀이 사이에 일관성을 모색해 볼 여지가 있음을 발견한 셈이다. 위 네 가지 풀이 유형에서 발견되는 내용 짜임새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민백의 올림말 풀이의 정비 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민백의 올림말 풀이는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하는 풀이가 앞에 배치되었다. 각 풀이의 '정의', '개설', '이름' 등이 그것이었다. '정의'가 풀이의 미시구조에 필수 항목으로 배치되었다면 '개설'은 미시구조에 수의적으로 포함되었고, '이름'은 미시구조와 무관한 수의적 정보로 제시되었다.

둘째, 올림말이 가리키는 대상(지시체)의 내적 정보는 외적 정보보다 앞에 풀이되었다. 내적 정보는 모양, 생김새(제원), 성분, 생태 등이고, 외적 정보는 기록, 평가, 민담, 기능, 효능 등이었다.

셋째, 사건이 관계되는 올림말은 논리 관계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보가 배치되었다. 논리 관계와 시간 순서는 대개 일치하지만, 시간 순서에 따른 정보 배치가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올림말의 내적 정보를 이루는 주요 요인들이 분류에서만이 아니라 풀이에서도 주요한 관건으로 기능하였다. 사건에서는 주체, 객체, 시간 등이 주요 요인이었고, 대상의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따라 그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다섯째, 각 유형의 올림말 풀이는 요인들 간에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풀이가 이루어졌다. '김동리'에서는 대표적 사건을 중심으로 대상과 길항 관계를 풀어 보였다. '강화도 조약'에서는 사건에 참여하는 대상들 간에 긴장 관계, 선후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가 풀이되었다. '걸립'에서는 주체에 따라 유형화되었으며 가치 추구의 목적 관계가 풀이되었다. '가물치'에서는 대립 가치가 드러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네 풀이 유형을 다음 〈표 7〉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표 7〉 풀이 요점에 따른 민백의 풀이 유형

	㉮ 전환·성과 중심	㉯ 인과 중심	㉰ 과정·기능 중심	㉱ 구조화된 속성 중심
풀이 대상	기간, 성과	정점 사건	탈구체화된 절차적 기능 사건	非사건적 대상
풀이 주안점	길항 관계, 성과 중심 서술	인과 관계 중심 서술	절차, 목적·가치 서술	기준을 분명히 한 속성 서술
세목	•엶, 전개/추이, 닫음 •성과, 특징	•구체적 6하(언제, 누가, 무엇을, 왜) •인과적 진행	•탈구체적·기능적 6하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절차적 부분 사건	기준에 따른 하위 유형, 부분, 속성
점검 요점	•길항 관계 명시 •성과의 대표성	•인과 관계의 선명성 •참여 요소의 유효성	•기능 중심의 유형화 •부분 사건, 가치	•속성 추출 기준 •속성 제시 순서 •속성의 포괄성
올림말 예	조선, 강동육주	강화도 조약	걸립, 길쌈, 모내기	계화, 가물치

2) 사례 검토: 유형별 풀이 정비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몇 가지 중간적 올림말, 혹은 본고의 입장에서 문제적이라고 볼 만한 올림말에 대하여 민백의 풀이를 점검하여 보기로 한다.

(34) '고려악(高麗樂)': 삼국시대 중국과 일본의 궁중에서 고구려의 음악인들이 연주한 음악. 고려기.

ㄱ. 〈명칭〉 일명 고려기(高麗伎)라고도 한다. … 고려의 음악을 뜻하지 않았다.

ㄴ. 〈수·당 시기 고려기〉 고려기는 수나라의 개황(開皇) 초에 설치된 칠부악(七部樂)에 … 다른 나라의 연주단들과 함께 연주되었다.

ㄴ′. 〈수 시기 고려기 악기 구성〉 구부악(九部樂)에 포함되었던 고려기에서 … 14종이라고 『수서』에 기록되었다.

ㄷ. 〈일본의 고려악〉 한편, 나라시대 일본에 소개된 고려악은 … 연주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ㄷ′. 〈일본 고려악의 인적 구성〉 대보율령(大寶律令)의 직원령(職員令)에 의하면, … 848년에 18인으로 감원되는 변천과정을 거쳤다.
ㄹ. 〈일본 고려악의 변천〉 고려악사와 고려악생들이 연주했던 고려악은 … 추정되고 있다.

(34)는 삼국시대라는 기간을 배경으로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일본의 궁중에서 외국 음악의 하나로 연주되었던 고구려 음악을 말한다. 기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려악'은 전환·성과가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사건의 구성 요소들이 탈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과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풀이의 주요 초점이 '전환', '성과'에 있다기보다는 탈구체화된 과정·기능 중심으로 사건을 풀이하는 올림말(3. 1) (3))로 보고자 한다.

(34)의 올림말 풀이는 명칭(34ㄱ)을 제외하면 중국(수, 당), 일본에서 실현된 고려기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는 데 초점이 있다. 현재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탈구체화된 구성 요소들이 수·당·일본의 궁중에서 해당 요소를 구체화하여 재현되는 것이었고, 이들이 일정한 주체, 악기(도구), 순서에 따라 전개되어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탈구체화된 절차적 기능 사건 중심 올림말 풀이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34)의 풀이는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제도(개념)으로서 각 시기를 중심으로 내용이 짜여 있다. 그러나 수·당 시기의 '고려기'가 소속되고 분류된 체계, 일본 고려악이 어떤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어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34)와 3.1.3의 서술을 고려할 때, (34)의 서술은 ① 참여자(악공 구성), ② 악기(도구), ③ 진행 순서, ④ 칠부악, 구부기(九部伎), 십부기 등의 구성, ⑤ 백제악, 신라악, 발해악과의 차이 등을 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45] (34)를 볼 때, 탈구체화된 절차적 기능 사건 올림말 풀이

45) ① 참여자, ② 악기, ③ 진행 순서가 내적 구성 요인이라면, ④ 구부기, 십부기, ⑤ 백제악, 신라악, 발해악 등은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구부기, 십부기가 ⑤ 백제악, 신라악, 발해악보다

는 이 사건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분류에 우선된 요인을 기준 삼아 유형화하고 전체 풀이에서 그 밖의 요소를 체계화하여 보이는 것이 독자 이해를 돕는 요건으로 보인다.[46]

따라서 (34)의 '고려악'은 수·당, 일본의 궁중이라는 장소를 우선 분류 기준으로 하고, 이 음악이 어째서 해외에서 연주되게 되었는지 목적과 포함된 과정을 추가하면서, 연주에 참여하는 악공의 구성, 악기의 구성 등을 균형 있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풀이를 보완해 볼 수 있을 것이다.[47]

(35) 이정법(里定法):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隣保組織)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
(36) 내용
ㄱ. 〈시행 방법 ①〉 이정의 방법은 … 면의 풍약(風約)에게 보고한다.
ㄴ. 〈시행 방법 ②〉 풍약은 즉시 조사하여 … 충당하도록 한다.
(37) 변천과 현황
ㄱ. 〈탄생 배경〉 전란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 많은 군역자를 모집하였다.
ㄴ. 〈탄생 과정〉 이에 … 방안의 하나로 이정법(里定法)이 제안되었다.
(38) 의의와 평가: 이유가 제안한 이정법은 … 토지세에 부가하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했다.

(35-38)은 '이정법'이라는 제도에 대한 민백의 풀이를 부문별로 나눠 보인 것이다. 이 올림말 풀이를 볼 때, '이정법'은 조선 시대에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된 군역 관련 제도로 이해된다. 본고의 관점에 따르면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전환·성과 중심의 풀이(3. 1) (1))가 적절한 올림말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점을 감안하여 ④를 앞에 둘 수 있겠다.

46) 이에 따라 '고려악'은 〈명칭〉의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한 '분류 기준', 혹은 '풀이 순서의 기준'을 명시하는 문장("고려악은 수·당에서 연주된 것('고려기')과 일본에서 연주된 것('고려악')으로 구분된다.")을 두거나 (32ㄴ, ㄷ, ㄹ)의 앞에 제목을 다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당의 악공 구성, 악기 구성, 연주 내용 등 고려기 구성에 대한 내적 정보를 더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맞추어 일본의 고려악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도 드러내어 서술)

47) 고려악이 연주되는 각 과정에 대한 풀이, 다른 나라 음악의 연주와 차별성 등도 가능하면 풀이될 수 있겠다.

이 유형의 풀이를 적용하면 이정법이 제안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 변모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 균역법으로 대체되어 사라진 시기 등이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48] 이 제도가 탄생하고 전개, 대체되기까지 길항 관계에 있었던 요인들은 (37), (38)에 비교적 분명하게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길항 관계의 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49] 덧붙여, 제안한 인물로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시행의 근거나 기록 등이 서술될 법하다. 나아가 이 제도 시행이 어떤 군액에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미흡한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의와 평가'는 길항 관계에 있던 요인들을 선명하게 제시하면서 그 성패의 요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9) '궁원의(宮園儀)': 1776년 예조에서 경모궁과 영우원의 제향에 관한 각종 도설과 식례를 제정해 놓은 의례서.

(40) 편찬/발간 경위: 정조는 즉위 직후인 3월에 사도세자에게 … 지어 올렸다. 이어서 먼저 축식을 정하고, … 제례를 정하였다. 그 후 예조에 의해 이 식례가 … 보완작업을 계속하였다.

(41) 내용

ㄱ. 〈내용 구성〉 이 책은 상·하 2책이다. … 상책은 어제 서문이 … 등으로 구성되었다.

ㄴ. 〈상책 내용 ①〉 서문은 … 그림과 설명이다.

ㄴ′. 〈상책 내용 ②〉 악기는 … 그림과 설명이다.

ㄴ″. 〈상책 내용 ③〉 제복은 … ·조례척기반 등이다.

ㄴ‴. 〈상책 내용 ④〉 「영우원의」는 … 그림과 설명이다.

ㄷ. 〈하책 내용〉 하책을 살펴보면 … 발(跋)이 있는데, 예조판서 이복원(李福源)

48) 이러한 내용, 이를 테면 제도 시행 기간, 제도의 종류 등은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9) 이 길항 관계는 '군역 대상 확인[양정수괄]', '군액 (부족)[균역정액]', 군정 차출 단위(호, 리, 동)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대 요인들 간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위키실록사전』에서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이정법(里定法)). 따라서 본고에서는 길항 관계의 각 요인들을 중심으로 백과사전 서술의 내용이 체계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용어가 아니라) 서술의 난도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이러한 길항 관계를 구체적으로 요인화하여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술하는 실제 적용은 언어적 정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 썼다.

(42) 의의와 평가: 정조는 준뢰(樽罍)와 일무(佾舞) 등을 종묘보다 한 등급을 낮추고 … 유지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39-42)는 '궁원의'라는 책에 대한 민백의 풀이를 부문별로 나눠 보인 것이다. (41)에 보인 '내용'에는 형태 서지는 조권(造卷) 사항만을 보였을 뿐, 간행 사항, 소장 정보는 서술되어 있지 않고 내용 서지를 중심으로 풀었다.[50] (40)의 편찬/발간 경위, (42)의 의의와 평가는 이 책이 시대적으로 인과적 관계의 한 요인이 됨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궁원의'는 구조화된 속성 중심 올림말 풀이가 중심이 되고, 이 책 발간을 '정점'으로 하는 인과 중심 풀이가 약간 곁들인 듯이 보인다.

'궁원의' 풀이는 (41)의 내용을 요점으로 한다. (41)은 구조화된 속성 중심 올림말 풀이(3. 1) (4))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편찬/발간 경위'와 '의의와 평가'는 (41)과는 체계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기 어렵지만, 이 올림말의 지시체가 시대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51] 속성 중심 올림말 풀이로서는 (32)에서 보인 형태 서지 관련 내용이 추가 풀이될 수 있다. 인과 중심 풀이를 본격화하더라도, 속성 중심의 풀이에 더하여 이 문헌 발간을 전후하여 인과적으로 연계되는 사건을 하나의 맥락 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요컨대 '궁원의' 올림말 풀이는 구조화된 속성 중심 풀이(3. 1) (4))를 중심으로 하되 인과 중심 풀이(3. 1) (2))가 보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궁원의' 풀이의 '개설'에는 (39-42)에는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궁원은 경모궁(景慕宮)과 영우원(永祐園)을 가리키며, 이는 사도세자의 사당과 무덤이다."가 그것인데, 민백이 올림말이 가리키는 지시체를 고유하

50) 상책의 내용이 4개 문단으로 풀이된 데 비하면 하책은 모든 내용을 문단 하나에 넣은 점도 균형이 맞지는 않는다.

51) 이런 면에서는 의의와 평가에 쓰인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민백의 풀이에서 참고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궁원의'와 상관되게 쓰이려면,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의도되었고,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왕권을 유지·고양하고 왕실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을 어떤 올림말의 어떤 풀이에서 참고할 수 있는지 독자가 알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풀이가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반영한다.

게 확인하는 외에도 그 올림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간략한 서술이 필요함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풀이이다. 이와 같은 풀이는 한자가 병기된 '경모궁', '영우원'이 어떤 뜻이고 얼마나 쉬운 용어인지와 무관하게 이 풀이를 접하는 독자의 손쉬운 이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52] 즉 백과사전의 풀이 난이도는 용어보다 풀이의 요점과 그 짜임새에 좌우된다고 보고자 한다.

'궁원의'처럼 구조화된 속성 올림말 풀이를 제시할 때는, 속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독자에게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도록 풀이하고, 풀이 내용은 그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ㅁ자집'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43) ㅁ자집: 안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ㅁ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지붕이 모두 연결된 연결된. 미음자집.
ㄱ. 〈종류〉 평면의 구성은 거의 공통적이나 … 똬리집도 ㅁ자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ㄴ. 〈경기 북부 해안지대의 ㅁ자집〉 안쪽 중앙에 마루를 배치하고 … 이러한 집의 형태는 경기도 북부 해안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ㄷ. 〈기능 구조의 배치〉 대청의 전면은 …

(43)의 'ㅁ자집'의 풀이는 목차를 나누지 않고 '내용' 하나만으로 풀이한다. 'ㅁ자집' 풀이는 정의항과 종차 서술 부분이 분명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53] 또한 각 항목이 시간과 무관하고, 참여자, 대상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화된 속성 중심 올림말 풀이(3. 1) (4))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ㅁ자집' 풀이의 내용으로는 독자가 내용의 짜임새를 이해해 가며 읽어가기 어렵다. 정의문 뒤로 어떤 주제어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일단을 옮겨 보기로 한다.

52) '궁원의'의 '의(儀)'도, 항목 풀이에 쓰인 '축식(祝式)', '식례(式禮)'와 아울러 알기 쉽게 풀이되었으면 이 책의 제목이 뜻하는 바를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53) 사전학의 정의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조동일(2017)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문 제시가 특히 거시론을 표현하는 포괄 항목 풀이에서는 꼭 따라야 할 원칙은 아니라고 하였다.

(44) ㄱ. 평면의 구성은 거의 공통적이나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ㄴ. ㅁ자집의 대표적인 것은 ㄱ자집의 간살을 기본으로 하는 집과 ㅡ자집을 기본으로 하는 집이 있다. 또 넓게는 경상북도 내륙지방의 뜰집, 경기도 서해안지역의 똬리집도 ㅁ자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ㄷ. 안쪽 중앙에 마루를 배치하고 … 동쪽 마루 옆에는 건넌방이 시설되고 …
ㄹ. 구조는 간단해서 모두 3량집으로 처리되는데 …
ㅁ. 대청의 전면은 문을 일체 달지 않은 채 개방되며 …. 부엌 안의 벽장은 …
ㅂ. 광은 안마당 쪽으로 문이 나 있어서 …. 또 이러한 평면의 집에는 나뭇간이 없고 …
ㅅ. 구유는 안마당 쪽에 길게 …. 사랑방의 주출입문은 외부 바깥마당 쪽으로 나며 …

(44ㄱ)으로, ‘ㅁ자집’ 풀이는 평면의 구성을 중심으로 서술될 것이며 공통된 구조와 지방에 따른 차이를 풀이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44ㄴ)에서 ㄱ자집, ㅡ자집[54]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할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이 항목 풀이에서 ‘ㄱ자집’은 한 번 다시 언급되지만 ‘ㅡ자집’은 끝까지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ㅁ자집의 여러 변형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추정)되지만, 각 집 구조가 어느 부분에서 끝마치고 다른 집 구조는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가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지시어가 포함된 ‘이러한 공간’, ‘이러한 평면’, ‘이곳’, ‘이 집’이 각 문단의 맨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풀이의 내용 짜임새를 구분하지 않고 독자가 자연스럽게 그 짜임을 구분할 수 없는 맥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해득하기는 요원하다. 이런 유형의 풀이에서는 제공하는 속성 정보를 체계화하는 다양한 표지를 구상하고, 이를 독자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4)에서 ‘ㄱ자집’을 기본으로 하는 ㅁ자집 유형, ‘ㅡ자집’을 기본으로 하는 ㅁ자집 유형을 큰 기준으로 두고, 그 아래에서 지역에 따른 ㅁ자집의 구

54) ‘ㅡ자집’은 ‘一(일)자집’으로 읽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력된 내용의 코드값에 따르면 ‘하나’를 뜻하는 한자 ‘一’을 입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씌어 있는 내용을 다른 수단을 따르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방안도 언어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하다.

체적 사례를 명시하면서 풀이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각 집에서는,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 부엌, 건넌방, 사랑방 등의 거주 구역을 따로 설명하고, 광, 외양간, 나뭇간, 대문간, 구유 등의 작업·저장 공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안마당, 대청, 행랑, 담 등의 전면 외곽 부분, 뒤뜰, 뒤채, 변광 등의 후면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체계적 방법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백과사전 풀이를 정리하는 언어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올림말과 올림말 풀이를 대상으로 하고 올림말 독해에서 가져야 하는 특성, 풀이 내용의 짜임새를 주된 관심으로 삼았다. 백과사전 풀이에 제시된 지식의 질, 최신성 등은 논외로 하고 제시된 정보가 독자에게 고유하고 균형되게 받아들여지는지, 지식을 재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집필이나 내용 교열을 하려는 편집진에게 비교적 간단한 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지식 자체, 정보 자체를 질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언어적인 방법론으로서 정비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었다.

수많은 기성 연구자가 다양한 전문 분야를 집필한 백과사전의 풀이 짜임새를 간략한 방식으로 추리는 일이 필요하고 시도할 만한지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다만 백과사전의 올림말 풀이는 그 자체로 쉽게 그 체계를 읽어낼 수 있게 씌어야 하고, 내용의 짜임새를 구축하는 방법이 편집진에게나 독자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받아들여지고, 이 사전에 익숙한 독자라면 예측도 어느 만큼은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과사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전 풀이를 출발점으로 삼는 표현 기반의 상향식 접근 방법은, 이상적인 개념 구조(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례를 대상에 적용하는 방식인 지식 기반의 하향식과 다른 장점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민백 자체에 집중하면서 집필진,

편집진의 다수가 공통으로 동의한 풀이 방식을 가정하고, 그러한 다수・공통의 풀이 방식에서 정보의 제시 방식, 사고 방식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면서 받아들이기 용이한 방식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나름의 정당성도 확보되었다고 믿는다. “원고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필해야 하고, 고정된 소제목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형식을 갖추느라고 소중한 것을 잃는다.(조동일 2017: 46)”는 논지에서 본고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필’해야 하는 원칙에만 집중한 셈이다.

민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재의 백과사전 편찬에 모본이 되는 가장 초기의 모델이면서 비교적 연구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으며, 현재도 독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사전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2023년부터 민백의 올림말 풀이를 내용 짜임새에 주목하여 볼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도 그 한 이유이다. 방대한 사전에 있을 수 있는 자잘한 오류, 단순 오식, 정서법, 문장 성분 문제 등은 비교적 접근이 쉽고 노동 집약적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백 풀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들을 다수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데 양해를 구한다.

본고에서는 올림말이 어떤 지식 체계를 대표하는지보다 올림말이 독자에게 고유하게 해석되는지, 일관성을 갖는지, 그 구체적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웹에서 출력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출력 방안에는 고유성을 가지는 대상을 가리켜 주지 못하는 사례, 일반적 해석에 반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백과사전 풀이를 바탕으로 그 내용 짜임새에 따라 올림말 풀이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각각, (1) 전환・성과 중심 풀이, (2) 인과 중심 풀이, (3) 과정・기능 중심 풀이, (4) 구조화된 속성 중심 풀이가 그것이었다.

(1) 전환・성과 중심 풀이는 일정 기간을 배경으로 하여 엶, 전개, 닫음 사건을 가지는 제도, 인물 등을 지시체로 하는 올림말을 풀이하였다. 따라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도 이 기간이 어떤 전환이 되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전면적 체계 아래에서 풀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⑵ 인과 중심 풀이는 단일한 시점이라고 인식되는 사건으로서, 인과 관계를 초점적으로 가지는 선행 사건과 본 사건 이후의 영향을 남기는 올림말 풀이였다. 따라서 단일하게 인식되는 사건의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사건의 전후를 인과적으로 풀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⑶ 과정·기능 중심 풀이는 탈구체화하여 추상된 사건으로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과정을 가지고 실현되는 사건으로서 역할을 충족하는 참여 요소가 실현되면 재현되는 지시체를 풀이하였다. 따라서 탈구체화하여 역할 중심으로 추상된 참여 요소를 기능 중심으로 풀이하고 부분 사건을 과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치를 풀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⑷ 구조화된 속성 중심 풀이는 사건과 무관하게 속성을 지니는 대상을 가리키는 올림말에 대한 풀이로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 구조화하여 풀이하는 게 관건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유사한 속성들을 인접하여 제시하면서, 구조화된 풀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정리한 네 가지 풀이 유형은 올림말을 분류하는 데 그대로 사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정리한 것은 올림말 유형 분류가 아니라 풀이 유형 분류라는 점을 되짚어 둔다. 또한 한 올림말에 네 풀이 유형 가운데 하나가 꼽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가 되는 풀이 유형에 보완적 풀이 유형이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민백 풀이가 올림말에 대한 정보를 특히 사건성을 중심 기준으로 하여 읽어낸 셈이다. 이런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을 터이고, 언어 표현 기반의 상향식 접근법을 달리 적용하여, 또는 지식 기반이나 하향식 접근법이 달리 조합·적용함으로써 본고의 제안이 보완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강현규・이창열・박세영,「백과사전 검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정보과학회 발표논문집』20(2), 1993.

김재헌・이명진,「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학습 기반 지식추출 방법론 및 플랫폼 연구」,『지능정보연구』25(1),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9.

김창일,「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편찬 방향과 전망」,『실천민속학연구』13, 2009.

김창일,「한국민속대백과사전 웹서비스 구축 현황과 향후 전략 모색」,『한국사전학』17, 2011.

도원영・방혜숙・최경봉・류시현・장경식,「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의 쟁점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편찬 사례를 중심으로-」,『어문논집』96, 민족어문학회, 2022.

박소영・정은선・고정희,「한국문화 국영문 사전의 구성과 주제 범주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민족문화연구』10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4.

박준식・문정순,「CD-ROM 백과사전의 평가기준 설정」,『한국문헌정보학회지』34(1), 2000.

신효필,「지식기반(Knowledge-based) 질의응답시스템: 사실 자료(Fact Database) 구축을 중심으로-」,『한국 인지과학회 논문지』13(1), 2002.

신효필,「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으로 하는 개념구조와 어휘기술」,『어학연구』40(3), 2004.

왕지현・김현진・장명길,「인물 백과사전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속성패턴기반 정보추출」,『2004년도 한국정보과학회 가을 학술발표논문집』31(2), 2004.

장경식,「『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구성과 특징」,『한국사전학』11. 2008.

장경식,「다중매체 시대의 백과사전 - '교육'의 효용을 중심으로」,『한국사전학』19, 2012.

장경식,「한국학 백과사전 기반 영문 사전 편찬을 위한 국문 원고 교열의 개념과 실제」,『민족문화연구』9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3.

장경식・방혜숙・도원영,「『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이용자 특징과 편찬 전략」,『민족문화연구』10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4.

정승화,「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지식-권력의 재구성」,『人文科學』106, 2016.

정철,「온라인 백과사전 만들기 -다음백과 2007 개편을 중심으로 한 필드 스터디-」,『한국사전학』11, 2008, 65-110쪽.

조동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폭과 깊이」,『정신문화연구』1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1992.

조동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나아갈 방향」,『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사업의 회고와 전망』 발표 요지집, 2017

조원형,「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문서의 텍스트성」,『텍스트언어학』30, 2011.

최호섭・옥철영・김창환・왕지현・장명길,「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백과사전 기반 지식베이스와 온톨로지」,『제15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2003.

현영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편찬사업: 사전 구축 현황과 쟁점」,『언어과학연구』110, 2024.

하트만, R. R. K. 편, 서태길 외 공역,『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씨, 2010.

Hartmann, R.R.K. and Gregory James, Dictionary of lexicography, London: Routledge. 1998.

【Abstract】

On the rearrangement methods of Encyclopedia descriptions

Seo, Hyeong Guk*

This study aims to analyze, from a linguistic perspective, the microstructure and explanatory structure of encyclopedias—defined as systematic compilations of entries that provide concise explanations of knowledge concerning human activities—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m.

To devise methods for refining encyclopedia entries, the study takes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Minjok Munhwa Daebaekgwa Sajeon)* as its concrete material. It seeks to classify, from a linguistic viewpoint, the types of knowledge arrangement found in the explanations of individual headword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distinguishes between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as well as between knowledge-based and expression-based methods, in analyzing the microstructure of encyclopedic explanations. Among these, it applies a bottom-up research method grounded in expressions.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four distinct types of explanation structures in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 Conversion- and outcome-centered explanation,

B. Causality-centered explanation,

C Process- and function-centered explanation,

D. Structurally organized attribute-centered explanation.

These types are classified based on how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knowledge being explained distinguishes types of information according to specific attributes and temporal features.

For each type of explanation, the study proposes the appropriate expression structures that encyclopedic entries should adopt, and summarizes the remaining issues to be addressed.

Keywords: Encyclopedia, item descriptions, microstructure type, linguistic method,

*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

systematic description, unitary description

접수일: 2025.06.30. ‖ 심사일: 2025.08.06. ‖ 게재확정일: 2025.08.20.